

추 모 사

한국 선의 근본(根本)이시자 조계종의 원천(源泉)이신 도의국사님 각령전에 성찰과 정진의 마음으로 분향 배례(拜禮)를 올립니다.

종조로부터 불연(佛緣)의 감화를 얻은 이래로, 무수한 선지식들이 진리의 세계를 열어 중생의 눈을 뜨게 했고, 한량없는 불자들이 무량한 공덕행으로 불국토를 장엄하여 왔으니, 종도 모두의 추모하는 마음이 곧 서원이자, 오늘을 실천하는 근간(根幹)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쉽 없이 흘렀으나, 초심은 뿌리를 내리고 원력은 줄기를 이루어 공심(公心)으로서 꽃을 피웠으니,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은 후학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선사의 인욕행(忍辱行)과 같이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다짐에 빛을 더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소임자들은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겠다는 목표에 다가가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역시 도의선사께서 종문(宗門)을 여신 뜻에 부합하는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사방각처(四方各處)에 불향(佛香)을 전하는 데에도 어려운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속에서 국민과 불자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가짐, 넓은 이해심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조사께서 우리 종문은 물론 민족의 정신사에 기여하신 바 너무도 지대하므로, 종도들은 그 뜻을 이어 민족의 정신은 물론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나무이자,

마르지 않는 깊은 샘으로 삼고자 합니다.

부처의 지혜와 보살의 자비심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어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두를 불조와 종조의 가르침으로 새기어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종도들이 합장하옵고 지극한 마음으로 종조의 큰 공덕을 추모하오니 자비로 섭수하시고 종단의 앞날을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불기2560년 6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